

8/1

2001년 8월 15일 여성통일한마당 행사기획안

### 3. 8월 15일 여성통일한마당 행사기획(안)

15일 3시 주선빌딩

1) 명칭

11시 통일연대 기자회견

2) 일시, 장소 연세대학교 후문 19호 - 176 9시. 행사 10시 ~ 12시 상설미술관

3) 행사내용

사전행사 : 진여대회 문선, 아줌마 노래단 공연, 청년의 사랑

- 개회사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내빈소개 (특별한 인사명단을)

- 대회사 : 여의

- 성지연설 : 김성연 : 부산·울산

- 분회 공연

남북여성공동질의문 발표 공동결의문! - 여의

행사 질의문 채택

4) 참가자 조직

타로이여사회 : 1,000, 진여동 : 200, 진여연립 : 1,000, 부산 = 40

5) 기타사안

진여기자회견

재정 : 부산 500원, 진여 500원

진여연립 500원 - 150원 (보통)

★ 진여동 통일연대를 대외로 넓히기 ★

연대?

신용보증기금, 정부, 무대

기자회견, 연립, 대외연세신문기 - 실무진 구성

실무진 : 진여연립, 진여동, 진여동, 타로이여사회, 진여연립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전여대협 대표 방북관련 보고

## 1. 방북관련 대표선정

8월 4일경 추진본부 실무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300인이 방북하기로 결정후  
 청년학생추진위 차원(34개단체소속) 40여명 배정 한총련 차원에서는 10여명 배정 -> 지역총련 차원으로  
 만 배정하고 부문단위는 청년학생통일대회때로 하기로 함, 따라서 전여대협 차원으로 배정이 안됨  
 8월 7일경 여성차원에서는 20여명 배정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차원으로는 10여명 배정 -> 반미여성회,  
 전여농 등 해서 전여대협 차원으로 1인 배정됨  
 전여대협 출범식에서 대중적으로 방북대표단으로 선정되었던 경북대 사범대 여학생회장님이 가시기로  
 급하게 중앙에서 결정  
 8월 9일경 실무적 준비 마침

## 2. 방북대표 준비활동

학교차원 -> 경북대학교에서 대경총련차원으로 가는 사회대부회장님이 계셔서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습  
 니다.  
 학교차원의 선전전과 도서관학우만담등을 가져가면서 방북내용을 많이 알렸습니다.  
 전여대협 차원 -> 결의서를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전국대학 총여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선전하면서 전  
 여대협 차원에서 알려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전달할사항들을 대학차원으로 준비해서 총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방북준비내용

의장님 편지글  
 자주교류 제안내용 -> 문서참조

## 4. 방북활동내용

15-17일까지는 여성단체분들과 공식적 행사와 만남은 가져가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8일부  
 터 돌아올때까지는 청년학생추진위차원 한총련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제 여학생대표단이 오지 않아서 직접적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조선학생위원회 분을  
 만나 간접적으로 총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정  
 확히 총화를 하고 이후 자주교류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5. 이후 총화 및 후속작업

- 1) 실제 전여대협 차원의 총화대회를 잡기는 어려운실정이므로 방북에 대한 총화글을 작성해서 전여대협  
 차원에서 총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이북바로알기, 이북여성바로알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이후 자주교류 계획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진행하면서 대학차원의 자주교류 계획을 고민합니다.

청년의 기백으로 여성의 강인함으로 조국통일을 완수하자!

보냄 :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  
 받음 : 조선학생위원회 여학생대표단  
 일자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8월 15일  
 용도 : 8월 15일 이후 자주교류사업을 위한 계획서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6.15공동선언이라는 대명제 아래 전민족이 하나가 되는 모습! 새 세기 첫 광복절 남과 북 해외가 평양에  
 모여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습! 또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세력들이 이제는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조국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는 청춘을 바치어가는 우리들이기에 지금의 이 모습이 더 감동적일거  
 라 생각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가치를 더욱 높이들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민족의 자足を 이루는 그 길이 바로 조국통일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여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 여학생대표단과의 꾸준한 교류와 만남 그리고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여대협은 청년학생통일대회에 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 청년학생통일대회때 여학생부문행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관철하는데 있어 청년학생통일대회가 성사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6.15공동선언 관철에 청년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표현함과 동시에 범청학련, 한총련  
 이 실질적 방북을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청년학생통일대회를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여기에서 여학생  
 들의 주동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학생부문행사의 내용으로는 자주교류사업의 전망을 그려보는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전여대협에서는 올해 일본군 위안소 당사단을 꾸려 일본군 위안부(종군위안부)문제를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의 정세나 흐름에 맞지 않  
 다고 생각되는 바 이후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자주교류사업의 전망을 그리는 토론을 진행하면 좋  
 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